

# 발표요약문

## 포스트 코로나시대, 글로벌 인식의 대전환

이희수

문화인류학자 및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Keywords:** 전쟁, 질병, 코로나, 인문가치, 해양 실크로드, 셴페르 아우구스투스

인류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사회-경제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언택트 시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공존-공생-공영"의 공감대를 더욱 확산해가는 과제다. 동시에 생태사슬의 복원을 위해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극대화시켜 대량생산을 하고 과소비를 통해 무한의 물량적 발전을 가져왔던 천박한 자본주의"시대가 종식되고 "적게 욕망하고 적정 생산을 통해 꼭 필요한 소비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절실해졌다. 기업 경영방식도 소비자의 변화에 맞춰 당연히 진화할 것이다. 또한 이 시대 우리는 팬데믹이 가져다 주는 공포와 위축에서 불필요한 희생양을 찾아 혐오와 배제를 키우는 것이 아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끌어안고 융합과 화합의 메가 시너지를 내는 가치정립이 필요해 졌다. 그런 점에서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받아들여 유전자 변형을 통해 놀랍도록 아름다운 튜립으로 피어난 셴페르 아우구스투스의 정신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